



## “당신과 나눠 쓰는 불화”

반연간 문예지 『쑈-문학의 이름으로』를 통해 등단한

정나란 시인의 첫 시집

『미음』

너는 한 음씩 늘려간다  
파열음의 파는 가장 넓은 가장자리를 가졌다  
나는 밀려간다

ISBN 979-11-970854-5-1 03810 192쪽 양장 값 10,000원 출간일 7월 5일

언론사 문화부 문학 담당 기자, 인터넷서점 홍보 담당자에게 보내드립니다.

사단법인 문학실험실(대표 이인성) | 담당 최하연 (편집주간) 010-4212-0752

## 다변(多辯)과 늘변 사이에서 자신만의 무게중심을 잡으며 상상력을 모두고 펼치는 능력...

시인 정나란 씨는 2016년 소설가 김효나 씨를 추천한 바 있는 문학실험실에서, 많은 신인 투고작 중에서도 한국문학의 현 상황을 견뎌내고 돌파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2019년 추천한 시인이다. 이제 우리는 그 확신의 결과물을 그의 첫 시집 『굉음』을 통해 확인할 차례이다.

둘러보면 팬시 상품처럼 잘 만들어진 시들이 한 시절의 영화를 누리는 동안 우리 시는 점점 더 무력해지고 있다. 역치값을 재조정하는 데 기여하던 말들은 사라지고 번다한 지각과 무책임한 논리가 자신의 얼굴도 잊은 채 득의만면한—어쩌면 뻔뻔한—문장들에 고스란히 피로를 새기고 있는 와중에, 정나란 씨의 시편들은 우리에게 단비처럼 다가왔다고나 할까.

정나란 씨의 작품이 한눈에 들어온 것은 다변과 늘변 사이에서 자신만의 무게중심을 잡으며 상상력을 펼치고 모두는 능력 때문이었다. 다변의 욕망은 다선적인 상상적 흐름으로 거침없이 번져나가지만, 늘변의 침잠과 사유가 여러 방향에서 끝을 찍고 돌아오는 이미지들을 새로운 전체로 구성해나가는 시적 논리를 구성한다. 때로는 그 둘이 비정합적으로 엉기기도 하지만, 어느새 이를 모아 세우는 언어의 척추가 감지되는 것은, 이 시인 안에 오래-멀리 다녀온 자신만의 어떤 체험과 정신이 하나의 상상체로 살아 움직이기 때문일 것이다.

### 여러 방향에서 끝을 찍고 돌아오는 이미지들의 침잠하는 몸짓

상상이란 없는 것을 만드는 기교도, 경험한 것을 그대로 살려내는 기억력도 아니다. 정나란 식의 상상력은 경계를 허물고 범위를 흐리면서 이것과 저것, 이곳과 저곳, 이때와 저 때를 불러내, 그 틈을 자신만의 환상과 상념으로 접착한다. 이 접착력—앞서 말한 무게중심—이 정나란식 상상력의 핵심이다. 독자들은 이 시인의 시 속에 호출되는 것들과 그 상상적 접착 방식이 기존의 시와는 상이함을 즉각 감지할 수 있다. 이는 이 시인의 내면 창고에 모여 있는 ‘시적인 것’들과 그것들을 작동시키는 ‘시작법’이 교과서적 창작 기술의 범주를 벗어나 있음을 뜻한다(실제로 그녀는 시를 따로 공부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 시인은 ‘시적인 것’들을 따로 가르거나 필요 없다고 버리지 않으며, 또한 그렇게 써서는 안 될 시 쓰기 방식도 따로 없다. 따라서 그의 시적 상상력에 작동하는 타임 루프나 순간 이동 터널도 아주 자유롭게 (그러나 정교하게) 열리며, 그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 독자를 매혹하는 것이다.

깊이 읽히는 시보다는 쉽고 재미있게 읽히는 시를 더 요구하는 시대, 뻔한 아포리즘과 예찬, 알팍한 힐링과 위로로 갖춘 시편들이 소통의 효용성으로 주목받는, ‘딜리버리 포엠’의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읽을수록 정나란의 시는 전혀 새로운 시로 다가온다.

“정나란 시인의 『굉음』은 ‘듣기’에 관한 노래로 들린다. 시인은 오로지 ‘당신’을 듣는 일, 당신을 제대로 듣는 ‘귀’가 되는 방법을 고민한다. 누군가를 향해 환하게 열린 귀의 모습으로 이 시집을 상상할 때, 제목이 예고하는 것은 언제 어디선가 우리를 습격할 굉음의 파편이다.” \_ 최가은 문학평론가

## 본문 중에서

당신과 나눠 쓰는 불화  
창호지 발린 문들이 열린 채 어둠을 나르고 있었다  
마지막 음들이 서늘하게 공기 중에 퍼졌다  
너는 한 음씩 늘려간다  
파열음의 파는 가장 넓은 가장자리를 가졌다  
나는 밀려간다

「밤의 속도」 전문

목련이 겨울에 피는 꽃이라면  
나는 강가에 불을 심겠다  
삼을 들고 흠을 파야지  
흠을 파서 줄지 않는 불을  
한 삽 두 삽 떠 놓아야지  
네가 파낼 수 있는  
불을 넣고  
삽으로 솟은 흠을 두드려야지

「목련이 겨울에 피는 꽃이라면」 부분

말과 말 사이를 나누면 떨어놓은 고기처럼 서늘하고 붉은 단면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것은 썰린 말의 어느 단면 그리고 그것을 마주하는 다른 단면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한 여자가 오랫동안 무덤과 묘비 중 어느 것에 죽은 이의 혼이 더 깃들어 있겠는가 생각하며 걸었다. 무덤과 묘비 중 무엇이 더 그것에 가까운가 가능하며 걸었다. 묘비 사이를 걸으면 입은 치맛자락이 길고 치렁해지는 기분이었다

「살해의 가능성」 부분

## 저자 소개 : 정나란

1977년 광주에서 태어나 2019년 『숲-문학의 이름으로』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공동 시집 『가장 가까이 있는 말로 · 흠에 도달하는 것들』을 펴낸 바 있다.



## 『굉음』

### 차례

밤의 속도  
목련이 겨울에 피는 꽃이라면  
3과 2분의 1  
기슭 쪽으로 2  
나팔  
남청색 길을 가는 흰 셔츠  
드넓은 평행을 이루었다고 말했다\_작곡가 Pervez Mirza를 생각하며  
검은 일요일  
넘기고 받으며  
놀이터가 보이는 창  
기슭 쪽으로 3  
회색 배는 정박하기 위해  
낙담하는 빛  
공터  
그는 눈을 감는다  
이곳은 개울 비슷하게  
승강장  
해바라기  
단단한 마음  
어떤 새를 그리느라  
언니 나는 언니를 알아  
목각  
성곽 산책  
움직임  
풀리는 사람  
어떤 슬픈 얼굴  
날들  
기슭 쪽으로 1  
밤과 달  
어떤 검정은 지나쳐 가야 한다  
물결들은 자물쇠를 열고  
경사면  
분홍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살해의 가능성  
공원  
목포 앞 바다  
그곳의 문  
높은 귀  
비지비지송  
없어진 구름  
두 번 꿈에서 만나고 그녀와 나는 서로의 먼 곳이 되었다  
펼쳐진 방  
심포니적으로  
틀림 이을에게  
삼켜진 거리  
당신의 황금  
시력을 찾아서\_글렌 굴드, 골드베르크 변주곡 1번 아리아에 맞추어  
ㄴ의 행위와 풀밭 위에 놓인 것  
우리의 질문은 모두 철을 향한 것입니다  
굉음  
먼 곳

感•흐르는 귀 \_최가은(문학평론가)